

유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 지정

유엔이 매년 9월7일을 한국이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로 지정했다. 국제 사회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방지와 깨끗한 대기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2위원회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결의안을 컨센서스(총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2위원회가 채택한 최초의 대기오염에 대한 별도 결의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내년부터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로 기념하게 된다. 이 날은 160여개 유엔 기념일 중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결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조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이날 결의안 제안 발언에서 "대기오염은 문제의 심각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역내 문제로 간주되곤 했다." 며 "모든 회원국, 유엔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 지정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을 기념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말했다.

환경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이행 기구 역할을 맡는다. 조 대사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대기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에 맞서 유엔 회원국과 유엔기구, 다른 핵심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등 2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중국은 이번 기념일 지정에 당초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 정부의 설득 끝에 컨센서스 채택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총회는 제2위원회를 통과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결의안을 이달 중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북,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 전격 취소

이달 초로 예정됐던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순회 공연이 중단된 것으로 지난 27일 확인됐다. 지난 10월 유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중이 무산된 데 이어 모란봉악단 공연까지 무산된 것이다. 모두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던 행사들이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공연하는 모란봉악단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공연기획사 징쓰웨이 문화창의유한공사는 이날 "당초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모란봉악단 공연은 진행하지 않게 됐다." 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베이징 소식통은 공연을 진행하려면 선발대나 관련 장비가 들어오고 공연장 예약도 이뤄져야 하는데 감지되는 게 없다고 전했다. 모란봉악단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이달 한달 동안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 창사 등 중국 11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모란봉악단의 방중 공연 중단이 주목받는 것은 과거 악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은 2015년 12월 공연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으나, 무대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면을 중국 측이 문제 삼아 공연 전 집을 싸서 귀국했다. 이후 이 사건은 '북·중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올해 모란봉악단의 방중 공연 소식이 알려졌을 때 북·중관계 회복의 징표 중 하나로 간주됐으나, 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중국 측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공연단 방중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 미·중 무역협상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목을 끄는 모란봉악단 방중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매끄럽지 않은 공연준비 과정 등 실무적 이유도 있는 만큼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공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터키 "S-400 상자에 넣어둘 생각 없다"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 실험을 한 터키가 미국의 비판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자에 보관할 제품은 사지 않는다." 며 "방공 시스템은 많은 돈이 들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고 말했다.

터키는 25일부터 이틀간 수도 앙카라 외곽의 무르테드 공군기지에서 러시아에서 구매한 S-400의 레이더 성능을 실험했다. 터키는 이 실험에 자국이 보유한 미국제 F-16 전투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S-400 성능 실험과 관련해 "우려스럽다." 며 "터키 정부에 S-400의 운영을 중단하기 바란다" 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고 말했다.

애초 터키는 미국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전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판매를 거부하자 러시아와 S-400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터키는 지난 7월 러시아에서 S-400을 반입했으며, 미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S-400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최신에 F-35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한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F-35 판매를 금지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터키는 F-35 국제 개발프로그램 참여국으로 지금까지 1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2억 달러 상당의 부품을 생산했다." 며 "F-35를 구매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